

출애굽의 연대 문제

오 병 세

(본지 발행인)

1. 구약의 연대 산출 방식

성경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중요한 연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이고, 모세는 1500년경이며, 다윗은 1000년, 이사야는 700년, 말라기는 대략 400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대를 산출하는 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일까?

근년에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성경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중에 「앗시리아의 인명 연대표 (*The Assyrian Eponym Lists*)」가 알려져 있으며, 거기에는 주전 892년부터 648년까지의 244년간 해마다 그 해의 중요한 사건과 인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앗시리아의 연대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 그리고 앗시리아의 총리 대신 부르 사갈레(Bur Sagale)는 시마누(Simanu)라는 달에 태양의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에서 이 일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그것은 주전 763년 6월 15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앗시리아의 「검은 방첨탑, (*The Black Obelisk*)」에 보면 앗시리아의 왕 살만에셀 3세의 승리를 축하하며, 원수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살만에셀 3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앗시리아의 연대표에 따르면 이것이 살만에셀 18년이고 예후의 즉위 1년 만이라고 한다. 앗시리아의 연대표에 따르면 이 해가 주전 841년이라고 한다. 이 841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다(왕하 9-10 장).

이 예후의 등극년인 주전 84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하시야, 아합, 오므리와 또 티브니, 시므리, 엘라, 바아사, 나담과 여로보암의 통치 연수를 합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1년이 된다(왕상 11:42). 그리고 다윗이 40년

을 왕 노릇하였으니 다윗이 왕이 된 해는 주전 1011년이 된다(왕상 2:11).

성경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였다(왕상 6:1). 이 해가 주전 966년(학자들의 계산을 따라 958년에서 967년 사이로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하였으니 곧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연수가 430년(출 12:40)이었다고 하니, 야콥이 가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주전 1876년이 되는 셈이다. 이때에 그의 연령이 1백 30세(창 47:6)였으니, 그가 출생한 것은 주전 2066년이 된다.

그리고 야콥이 출생할 때에 이삭의 연령이 60세(창 25:26)라고 하였으니 이삭의 출생 연도는 2066년이다. 또한 아브라함이 백 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 주전 2166년이 된다(창 21:5).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 연대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애굽과 바벨론과 파사의 연대기와 고대의 일식에 관한 기록들이 참고가 되어 이스라엘의 연대가 산출되었다. 구약의 연대 계산에 있어서 주전 1천년경, 곧 다윗 시대까지는 과학적 기준으로 거의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

2. 주전 13세기 출애굽설(說)

근자에 학자들 간에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3세기 곧 1290년이나 1250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주전 13세기 출애굽설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① 출애굽기 1:11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스를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라암세스라는 도성 이름은 라암세스 2세(1304-1238)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출애굽하였으므로 주전 13세기라는 것이다.

② 미국 학자 글뤽(Nelson Glueck)가 요단 동편을 살펴본 결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에는 주전 13세기까지 정착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방에 들어올 때에 주민들의 저항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③ 주전 13세기에 가나안의 도성들이 파괴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침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에 제시된 주전 13세기 출애굽의 주장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출애굽기 1:11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 라암세스성이 바로 라암세스 2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출애굽은 라암세스 시대인 13세기라는 견해이다. 이 라암세스는 애굽말로 피라메세(Pi-Ramesse, 곧 라암세스의 집이라는 뜻)

인데, 다른 이름은 소안(Zoan, 시편 78:12, 43)이고 또한 타니스(Tanis)라고 불리었으며, 이 도성이 또한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Avaris)였다.

이 라암세스 도성은 힉소스 왕조와 관계가 있었는데, 학자들 중에 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도성이 힉소스 왕조 때부터 라암세스라고 불리었다고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라암세스 2세 전에 힉소스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스 건축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라암세스성과 힉소스 왕조의 깊은 관련성으로 보아 라암세스 2세 이전부터 이 도성 이름이 라암세스라고 한다면 꼭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세스 2세 시대인 주전 13세기에 출애굽하였다고 할 필요는 없다.

둘째로, 글릿크의 주장을 따라 주전 1900년에서 1300년까지에는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글릿크가 요단 동편을 살펴볼 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북진을 방해할 그런 정착민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산발적인 유목민들은 그 지경에 있을 수 있었으나, 민수기 20:14-17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글릿크가 말한 대로 애돔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했다거나 요새를 건립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며, 그들은 전투 태세를 갖춘 백성

이 아니었다. 그와 같이 에돔족들도 단순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도시 형태의 유물을 남길 형편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뿐 아니라 그릿크의 요단 동편의 고고학적 답사는 고고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수정들이 가해졌다.

특별히 하딩(G. Lankaster Harding)이 암만(Amman) 부근에서 도자기와 가정 용품들의 발굴을 보고했는데, 그에 따르면 주전 1600년경의 것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1967년에 펠라(Pella) 근방에서 주전 16세기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고, 1955년에는 암만 비행장의 활주로 밑에서 후기 청동 시대의 신전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 헤스본과 그 근방에서 도자기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것은 요단 서편과는 다른 형태라는 것이 알려졌다. 최근 약 30년간의 많은 고고학적 발굴로 요단 동편은 정착민들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화한 문화가 존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 주전 13세기 출애굽을 주장하는 것은 토대가 약한 것이다.

셋째로, 주전 13세기에 가나안의 도성들이 파괴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침입으로 말미암았다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리고의 도성 파괴 문제는 갈스탕(John Garstang)과 케년(Kathleen Kenyon) 사이에 논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붕괴가 주전 15세기 말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갈스탕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여리고성의 제 4 부와 동 시대의 공동 묘지에서 발견된 이름들이 제 18 왕조의 왕들의 것이었고, 아메노테프 3세(1412-1376) 이후의 것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주전 15세기의 출애굽을 지지한다는 말이다. 또한 여리고성 제 4 부대에서 발견된 15만 개의 벽돌 조각을 살펴볼 때에 그 중에 한 개만이 미케네형(Mycenaean Style)이었다고 한다. 미케네 문명이 팔레스타인에 도입된 것은 주전 1400년 이후이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제 4 부의 붕괴는 14세기 초 이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갈스탕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주전 1400년경의 여리고 함락을 주장한다. 그는 여리고에 관한 직접적인 과학 지식을 가진다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것이며, 선입 주견을 가지고 출애굽의 연대를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리고성 제 4 부에 관하여 「리버풀 고고학 연보 (*The Liverpool Annals of Archaeology*)」에 발표한 결과를 반박한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아메노테프 3세 때인 주전 1400년경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이성은 에트-텔(Et-Tell)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고고학적 발굴로는 주전 2200년에서 1200년까지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아이성과 에트-텔을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

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올부라이트(W. F. Albright) 같은 이는 여호수아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킨 도성은 아이가 아니라 벤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는 분명히 아이와 벤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의 멸망을 말하고 있으나 이때에 벤엘의 함락을 시사한 성경 구절은 없다. 또한 벤엘은 1934년에 올부라이트의 지도하에 발굴한 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요셉 지파로 말미암아 후대에 망했다(삿 1:22-26).

이 아이성을 가리켜서 일시적 군사 주둔지라 하였다. 또는 아이라는 히브리어의 본뜻이 '폐허'임으로,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단순한 폐허였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이 없다고 성경 기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아이성은 작은 도성이니(수 7:3), 이곳은 벤엘 방위를 위한 요새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일부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도성들이 파괴된 것은 주전 13세기이고 14세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크게 성공적이 못 된 것을 알 수 있다(수 13:1-6; 삿 1 장).

그리고 여러 경우에 한 번 점령한 땅을 다시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 번 공격으로 다 성공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리고 팔레

스타인 점령을 사사 시대인 주전 13세기까지 지속이 되었고, 여브스족이 점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완전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이었으니 그때에 나라를 완전히 통일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원수의 모든 성을 다 멸하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의 정책이었으니, 그는 싸움터만 멸한 것이다(수 10:28-42). 그 좋은 본보기가 북방 점령 때 있었으니 이 사실을 여호수아 11:13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주전 14세기에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이 파괴가 덜 된 것은 여호수아가 전멸하지 않기로 작정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견해이다.

그리고 주전 13세기에 팔레스타인의 도성들이 파괴된 것은 여호수아 일행의 점령이 아니라, 그 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나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주전 15세기 출애굽설

우리는 이제 주전 15세기 출애굽설을 검토해 보기로 하는데, 특별히 구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열왕기상 6:1

솔로몬의 통치 4년은 구약의 연대 산출 부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전 966년으로 간주한다. 이 연대는

학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서 주전 958년에서 967년까지의 융통성을 두고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후 480년이니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전 13세기 출애굽을 주장하는 자들은 열왕기상 6:1의 480년이란 말은 12대를 가리킨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480년은 12대인데, 그 한 대는 4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계산해서 사실은 360년을 뜻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12대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480년이란 확실한 숫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숫자를 나타낸 것이지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480년이란 인물의 연대가 중복된 것을 다 계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상고한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풍유적 해석법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2) 사사기 11:26

이것은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에 들어온 지가 이미 30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제 8대 사사였고, 그 이후에 4명의 사사들이 있었고(삿 12:8-15, 16:31), 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즉위 제 4년이 주전 966년이니, 입다의 때는 주전 1,100년경으로 추산한다. 그러면 입다가 자기 시대까지가 출애굽 후 300년이 된다고 하였으니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연대는 주전 1,400년

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대는 40년의 광야 생활의 수를 더하면 1,440년 경으로 전통적인 출애굽의 연대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전 15세기 출애굽을 반대하는 자들은 입다가 본래 기생의 아들로써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말한 300년이라는 말을 如字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입다의 위인을 너무 과소 평가한 처사에서 나온 결론이다. 아무리 평가 절하를 해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출된 입다가 300년이란 숫자 파악도 못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주전 13세기 출애굽설을 정당화하려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고 성경의 바른 해석은 아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은 사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구절들이다. 이런 확실한 성경 구절 외에 역사적이고 고고학적 증거들이 주전 15세기설을 지지한다.

만일 우리가 주전 13세기 출애굽설을 취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주한 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가 200년밖에 되지 않으니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사사들과 사무엘까지 합해서 200년 안에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이다. 블레셋 백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에게 공존하며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주변 정세를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하지 않고서

는 다 수용할 수 없다.

4. 결 론

우리는 이상에서 출애굽 사건이 주전 13세기인지, 15세기인지를 살펴 보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요한 과학의 발달은 핵 물리학과 아울러 고고학을 꼽는다. 우리는 고고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학자들은 “사람이 만들고 기록한 것의 1/10 정도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라고 주장한다. 사실 1/10도 못 되는 재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고고학이 절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영감된 성경을 가지게 됨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번만 주신 귀한 편지로서 90%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100% 정확하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의 편지가 거짓될 수 없다. 과거에 사람의 좁은 식견으로 성경을 의심하고, 또 비판하였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경의 진실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성경이 참되다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곧 역사와 과학, 기타 모든 부분에서 참되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고고학적 증거에는 해석의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자체의 분명한 구절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출애굽은 주전 15세기라고 주장한다.